

“가벼운 로코? 거친 장면 많아요”

〈로맨틱 코미디〉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일본 인기 드라마 각색...30일 첫 방영 김희애·지진희 등 출연...어쩌다 어른 된 중년들의 유쾌한 로맨스

40대의 사랑을 경쾌하게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안방극장에 찾아온다.

오는 30일 SBS TV에서 첫 방송 되는 주말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이다. 2012년 일본 후지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를 우리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최영훈 PD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얕만 보고 달리가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유명 드라마 PD로 현재는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로 일하는 46세 김민주는 시청 지역관광과 과장인 동갑내기 고상식은 드라마 촬영 문제를 놓고 얽히고설킨다.

열정 넘치는 김민주는 드라마본부 해결사로 나서면서 일을 벌이고, “이름 그대로 상식선에서 일하는” 고상식은 그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사랑도, 이별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인 여자와 아내를 잃은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가족을 건사하느라 바빠던 남자는 서로를 통해 정춘을, 사랑을 발견한다.

각각 ‘미화’(JTBC)와 ‘에인 있어요’(SBS TV)에서 농도 짙은 사랑을 표현한 김희애와 지진희의 연기 호흡에 기대가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김희애는 “무거운 느낌의 배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유쾌한 분”이라고 지진희를 소개했고, 지진희는 “김희애 씨와 함께 대본 연습을 하는데 될 때까지 몇 번씩 열심히 한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김희애는 이번 작품을 택한 데 대해 “이야기 중심이 사랑에만 맞춰져 있었다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살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을 곡곡 짚어 주는 지점들이 많아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작발표회에는 김민주가 번지점프에 도전하다 물에 빠지고, 고상식이 그를 구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김희애는 차마 번지점프를 직접 하지는 못했으나, 뒤는 모습만 점프대에서 4시간 동안 촬영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김희애는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정도가 아닌 완전히 무너진다(망가진다)”면서 이번 드라마의 코미디적인 부분도 눈여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번 하면 굉장히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게 확인해 달라고 제작자에 부탁할 정도로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국판은 원작보다 로맨틱 코미디에 더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최 PD는 “김희애와 지진희가 그동안 진지한 연기를 많이 했는데 두 사람 다 코믹 본능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지진희도 “원작은 잔잔한 느낌의 중년 로맨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드라마는 통통 튀는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밝은 이미지 안긴 배역 좋았어요”

‘미녀공심이’ 석준수 역 은주완

지난 17일 종영한 SBS TV 주말드라마 ‘미녀 공심이’는 다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드라마가 남긴 것은 시청률만이 아니다. 각각 남녀 주인공 안단태와 공심을 연기한 남궁민(38)과 걸스데이 민아(23)는 연기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두 캐릭터와 삼각관계를 형성한 석준수 역의 은주완(33)도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과 엇갈린 사랑을 펼치는 남자 캐릭터가 대부분 약하거나 못난 것고 달리, 소탈하고 웃음 많은 재벌 3세 석준수에게 많은 시청자가 반했다.

은주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녀 공심이”는 제게도 밝은 이미지가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날카로운 인물, 아니면 약하게 변해가는 인물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껏 출연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활짝 웃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제가 했던 배역들보다 석준수를 더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최근작인 SBS TV ‘편지’와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에서도 각각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권력을 움켜쥐려는 검사와 비밀스러운 남자로 등장했다. ‘미녀 공심이’에서도 석준수가 결국 돌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특히 18회에서 석준수가 가족의 범죄를 덮고 안단태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장면이 등장하자 시청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주완은 “석준수가 (안단태 유괴범인) 외삼촌과 손잡겠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난 중간 대본을 보면서 저 역시 석준수가 이렇게 (악인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연기자로서 정말 기뻐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사촌지간으로 드러난 안단태와 석준수의 ‘브로맨스’(남자들간의 우정)도 도드라졌다.

은주완은 “석준수와 안단태가 어깨동무도 하고, 손목도 잡고, 손도 포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했는데 ‘민이 형’과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은주완은 남궁민의 존재가 ‘미녀 공심이’ 출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이날 털어놓았다.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걷는’ 선배 남궁민에 평소 호감이 있었다고.

“진행 경로를 봤을 때 저와 형 모두 선과 악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닮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게 되잖아요.”

함께 촬영할 때는 엔지도 별로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연기 호흡도 잘 맞았다고. 은주완은 힘을 풀고 촬영에 임하는 편이라면, 남궁민은 조용히 집중하는 편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수상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쇼트 화동(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W)(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무형유산 한마당 전통의 맛과 흥 55 감성애니 하루 (재)		30 리얼스토리 논(재)	20 나홀로 세계여행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명승부 (재)	00 MBC 뉴스특보 20 텔레뉴스(재) 25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텔레뉴스(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365
3	1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40 코리아 지오그래피 플러스 55 튜트생활제2	00 자동차부동산 위키 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사이클(재) 55 책잡이요정 또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개별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55 벤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방학특집 KBS 스페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위대한 유산) 55 숲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윈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한국우역70년 특집다큐 다시 읽다! 수출강국 코리아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12	30 네트워킹 문화특선 울타리(재)	4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과리고추짬과 애송박전)	15:50 바오발심의 파오파오
06:10 세계의 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꿈디와 친구들(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30 주사위 오징어 큐비슈	12:10 통일의 길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07:45 뽕뽕뽕 뽕뽕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덩동덩 유치원 1~3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뽕뽕뽕 뽕뽕(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1~4
09:00 꿈디와 친구들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00 코코몽2	19:30 EBS 뉴스
09:40 달라졌어요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신다
(노후가 우선인 남편과 자식이 우선인 아내)	15:00 모피와 친구들	(나의 가족 미디어중독 탈출기)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세이셸군도 대탐험 4부 행복함 공중 크레울>
		21:30 한국기행 <기운찬 로드 4부 여름 알차게 영끌었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내 여친은 지식인 3화>
		22:45 다문화 고부열전 <7전8기! 며느리는 공부 중>
		23:35 글로벌 가족찾기 <방글라데시 아빠 이문의 육아는 힘들어>
		24:10 EBS 스페셜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 (음 6월 25일辛亥)

<p>子</p> <p>48년생 외관에 이끌리던 대세를 가능하게 힘들어진다. 60년생 농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나. 72년생 양자 간의 관계에서 매우 곤혹스럽겠다. 8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3, 58</p>	<p>午</p> <p>42년생 출선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4년생 자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될 것이다. 66년생 전례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78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11</p>
<p>丑</p> <p>49년생 한정된 조건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 고민하리라. 61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일해야 한다. 85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5, 34</p>	<p>未</p> <p>43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55년생 예견했던 바가 실제로 발생하겠다. 67년생 번가름타러도 직접 만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본다면 색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79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7, 10</p>
<p>寅</p> <p>50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62년생 당혹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74년생 처리만 잘한다면 김사와 연결되리라. 86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1, 88</p>	<p>申</p> <p>44년생 장래의 길흉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56년생 차이로 인한 변화가 클 것이다. 68년생 속명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80년생 자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행운의 숫자 : 85, 97</p>
<p>卯</p> <p>51년생 힘든 만큼에 비례한 효과가 확실하 나타날 것이다. 63년생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농치지 않도록 하라. 75년생 집요하게 파헤쳐야 드러나겠다. 87년생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4, 48</p>	<p>酉</p> <p>45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57년생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하라. 69년생 지혜를 짜내어 요령껏 풀어나가야만 한다. 81년생 순조로운 운을 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1</p>
<p>辰</p> <p>40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52년생 반박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64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주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절치부심하게 된다. 88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공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92</p>	<p>戌</p> <p>46년생 실효적인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58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70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양새를 도모하는데 일조하리라. 82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다. 행운의 숫자 : 82, 23</p>
<p>巳</p> <p>41년생 변수를 보일 수 있는 판도이다. 53년생 앞당겨질 수도 있다. 65년생 호적수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 77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89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2, 47</p>	<p>亥</p> <p>47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59년생 행면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71년생 용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가 요구된다. 83년생 기회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29, 1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